

2018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③	5	②
6	⑤	7	④	8	①	9	④	10	④
11	③	12	②	13	④	14	①	15	①
16	⑤	17	⑤	18	⑤	19	①	20	①
21	②	22	⑤	23	④	24	②	25	②
26	①	27	④	28	③	29	①	30	②
31	③	32	④	33	②	34	④	35	⑤
36	②	37	③	38	③	39	⑤	40	④
41	⑤	42	①	43	③	44	③	45	②

해설

1. [출제의도] 발표 계획 파악하기

발표자는 1문단에서 표정에 대해 발표하겠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2. [출제의도] 발표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세표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요긴한 단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미세표정을 중요시한다고 언급한 ㉔은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청자 3’은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이 있다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들은 표정을 통한 감정 파악에 서툴 수 있’다는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④ ‘청자 1’은 발표에서 언급한 표정 이외에 다른 표정들에 대해 자료를 더 찾아보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 사례가 누락된 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자 1’은 자신의 평소 대화 태도를, ‘청자 3’은 자신의 대화 경험을 떠올리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의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㉔에는 속담이나 한자 성어와 같은 관용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① ㉑에서 ‘학생 2’는 앞서 ‘매니저’가 언급한 설명의 일부를 다시 진술한 뒤 그 일의 성격이 여행과 유사하게 여겨진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㉒에서 ‘학생 2’는 자신의 질문, 즉 장소 섭외와 여행의 차이점에 대한 ‘매니저’의 답을 듣고 그 핵심을 요약한 뒤 질문의 형식으로 자신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학생 2’는 촬영 장소의 섭외와 여행을 다니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묻고 있으나 촬영 관련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묻고 있지 않다.

① ‘학생 1’은 인사말을 건넨 후 매니저가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로케이션 매니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매니저로서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든지에 대해 묻고 있다. ④ ‘학생 2’는 ‘매니저’에게 좋은 촬영 장소를 발견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⑤ ‘학생 2’는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으로 매니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작문 계획에 반영된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의 인터뷰에서 ‘매니저’는 좋은 촬영 장소를 발견하기 위해 문학 작품을 읽거나 사진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강한 체력과 끈기가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나)의 초고에서 ‘학생 1’은 1문단에서 로케이션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뒤 2문단에서 로케이션 매니저가 갖추어야 할 자질, 즉 앞서 인터뷰에서 ‘매니저’가 언급한 사진 공부하기, 문학 작품 읽기, 강한 체력 유지하기 등의 노력 방안들을 나열하며 그 구체적인 이유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 사진을 공부함으로써 섭외할 장소의 풍경을 촬영했을 때 화면에 어떻게 구현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풍경에 따라 사진 촬영 방법을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비교의 방법으로 서술되어 있지도 않다. ② (나)에는 (가)와 달리 이직률이 높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이직 원인을 분석하거나 그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도 않다. ③ 로케이션 매니저가 촬영의 전반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으나 촬영 장소와 목적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열정과 끈기가 중요하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으나 다른 직업의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고쳐 쓰기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로케이션 매니저가 장소를 발견하는 일을 한다는 점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수정한 내용에서는 로케이션 매니저의 특성, 즉 촬영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를 섭외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수집하다’가 ‘여러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으다’의 의미이므로 (나)의 마지막 단락에 쓰인 ‘정보를 찾아 모아 수집해 볼수록’을 ‘정보를 수집해 볼수록’으로 수정한 것은 중복된 표현을 삭제한 것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기 위해 ‘학생의 초고’ 1문단에 지역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길 찾기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같은 현재의 문제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건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학생의 초고’ 4문단에 인지건강디자인에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의 특징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음을 제시하고 있다(㉑). 1문단에 길 찾기가 어려워 곤란해하시던 할머니를 만난 자신의 경험담을 제시하고 있다(㉒). 2문단에 인지건강디자인의 개념과 이를 건물의 안팎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㉓). 그러나 인지건강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조건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㉔).

10.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다)에는 노인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인지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인터뷰 내용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활용할 수 없다.

① (가)~1은 ○○구 65세 이상 지역 주민들이 외출을 꺼리는 이유와 각각의 이유에 해당하는 비율을 수치로 제시한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나)는 인지건강디자인을 도로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

아져 노인들의 외출 빈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보행로와 차도에 인지건강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다)는 노인들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노인들의 인지 능력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노인들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가)~2를 통해 인지건강디자인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를 통해 인지건강디자인이 도입되어 노인은 물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임산부의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줄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합성어의 결합 방식 이해하기

③의 ‘보살피다’는 ‘보다’의 어간 ‘보-’가 연결어미 없이 용언 ‘살피다’에 바로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① ‘어깨동무’는 명사 ‘어깨’와 명사 ‘동무’가 결합한 합성 명사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건널목’은 용언 ‘건너다’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 ‘목’과 결합한 합성 명사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여닫다’는 용언 ‘열다’와 용언 ‘닫다’가 연결어미 없이 결합한 합성 동사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검버섯’은 용언 ‘검다’의 어간 ‘검-’이 연결어미 없이 명사 ‘버섯’과 바로 결합한 합성 명사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나)의 ‘즌흙’은 ‘즐다(현대 국어의 ‘질다’)’의 관형사형 ‘즌’이 명사 ‘흙’과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로서 현대 국어의 ‘진흙’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된 것이다.

③ (다)의 ‘아라들다’는 용언 ‘알다’와 연결어미 ‘-아’ 그리고 용언 ‘들다’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로 현대 국어의 ‘알아들다’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된 것이다. ④ (라)의 ‘숫나다’는 용언 ‘숫다’와 용언 ‘나다’가 연결어미 없이 바로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현대 국어의 ‘숫아나다’는 연결어미 ‘-아’와 함께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현대 국어와 다르게 합성된 것이다. ⑤ (라)와 (마)를 통해 현대 국어의 ‘숫아나다’가 중세 국어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인 ‘숫나다’와 통사적 합성어인 ‘소사나다’의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쓰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 [출제의도] 된소리되기 이해하기

‘앉을수록’을 [안즐쑤록]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수록’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ㅅ’을 [ㅆ]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한편 ‘기뻐 곳이’를 [기뻐꼬시]로 발음하는 것은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을 [ㄲ]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㉔에 해당한다.

① ‘국밥’을 [국뻑]으로 발음하는 것은 앞말의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ㅂ’을 [뻑]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㉑에 해당한다. 한편 ‘삶고’를 [삼꼬]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ㄱ’을 [ㄲ]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② ‘꽃다발’을 [꼇따발]로 발음하는 것은 앞말의 받침 ‘ㄷ(ㄷ)’ 뒤에 연결되는 ‘ㄷ’을 [ㄸ]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㉑에 해당한다. 한편 ‘활지만’을 [활찌만]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을 [ㅉ]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③ ‘울조리다’를 [읍쪼리다]로 발음하는 것은 앞말의 받침 ‘ㅂ(ㅂ)’ 뒤에 연결되는 ‘ㅈ’을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㉑에 해당한다. 한편 ‘먹

을지언정’은 어간 ‘떡-’과 어미 ‘-을지언정’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머글찌언정]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지언정’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ㅈ]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⑤ ‘홀다’를 [홀따]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한편 ‘떠날지라도’는 어미 ‘-(으)ㄹ지라도’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ㅈ]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문장 표현의 특징 파악하기

①의 ‘지루하다 못해 졸리다’에서 ‘못해’는 지루하다는 상태에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의 상태가 극에 달해 지루함을 넘어 졸린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하므로 ‘지루하다’의 상태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뒷말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적절하지 않다.

② 부정 표현 중에서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으로 인한 부정을 표현하는 ‘못’ 부정문은 부사 ‘못’을 활용하거나 용언 ‘못하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㉔에서는 ‘자전거를 탄다’의 부정문으로 ‘못 탄다’와 ‘타지 못한다’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서는 ‘안’ 부정과 ‘못’ 부정이 아닌 ‘말다’ 부정을 사용한다. ⑤ ㉔에서 ‘분명히’는 ‘했다’, ‘하지 않았다’ 모두와 호응을 이루지만 ‘결코’는 ‘하지 않았다’와만 호응을 이룬다. 이를 통해 반드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야 하는 부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출제의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해하기

‘독립문’은 [동님문]으로, ‘대관령’은 [대괵령]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표기 일람에 따라 각각 ‘Dongnimmun’과 ‘Daegwallyeong’로 적어야 한다.

** 인문 **

□ 출전: 박정자, <빈센트의 구두>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고흐의 ‘구두’라는 작품과 관련한 하이데거, 사피로, 테리다의 예술 작품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밝힌 글로, 예술 작품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① 고흐의 작품을 사례로 들고 있지만 예술 작품 창작 방법을 유형화하고 있지는 않다. ② 모방에 대한 기존 견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의 ‘예술 작품은 도구의 존재를 드러냄에 따라 ~ 존재자의 본질을 열어 보여 주는 것이다.’를 통해 예술 작품 속 존재자의 본질은 존재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파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예술 작품을 현실의 모방이나 재현으로 보는 것은 예술 작품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 해당한다. ② 예술 작품 속 존재자의 본질은 실용적 목적이 아닌, 존재에 의해 드러난다. ③ 예술 작품 속 존재자는 현실과 얼마나 유사한지와 관계없이 존재에 의해 드러난다. ④ 예술 작품 속 존재자는 존재의 드러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실제 사용되는 모습의 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1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하이데거는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흐의 작품 속 구두가 구두를 신었던 어느 농부의 삶 전체를 드러낸다고 보았고, 사피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두를 구두의 주체인 고흐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리다는 이러한 두 사람의 관점이 그림 속 구두가 한 켤레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배제하고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한 방향으로 고정하여 자신만의 관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①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을 향유의 대상이 아닌, 진리가 드러나는 통로로 보았다. ②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을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사피로는 고정된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다양한 감상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보다 예술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므로, ‘안정’과 ‘파이프’보다 작가의 촬영 의도에 주목했을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 속 도구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삶의 궤적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③ 사피로는 작품 속 도구의 소유주를 찾아 특정 주제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안정’과 ‘파이프’의 소유자가 몬드리안이라는 점에 주목했을 것이다. ④ 사피로는 하이데거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작품을 해석한 것을 비판했다. ⑤ 테리다는 작품 속 도구가 하나의 고정된 관점으로만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2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4, 5문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테리다는 예술 작품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 대한 단 하나의 최종적 해석은 어렵다고 보았다.

② 테리다는 예술 작품의 진리가 다른 작품과의 대비를 통해서가 아닌 작품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④ 테리다는 하이데거가 하나의 진리로 회귀한 것처럼 예술 작품이 본질적 해석으로 귀결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⑤ 테리다는 예술 작품 속에 반영된 현실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진리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 현대 소설 **

□ 출전: 이순원, <말을 찾아서>

2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아부제’는 간조폐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떠날 수 없었고, 이에 ‘나’는 ‘아부제’와 함께 내려가기 위해서 봉평에서 하룻밤을 더 묵기로 결심한다.

①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구 시키든?’이라는 질문에 ‘지 마음으로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어머이’의 부탁으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 ③ ‘아부제’는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말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 ④ ‘아부제’는 ‘들어오는 사람 편에 나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짐을) 다 챙겨 내려왔’다고 하였다. ⑤ ‘말’ 때문이 아니라 ‘나’가 자신을 찾아와서 강릉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2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㉔은 자신을 찾아와서 함께 살겠다고 말하는 ‘나’에게 고마움을 느낀 ‘아부제’가 ‘나’가 싫어하는 짐승인 노새(말)를 치움으로써 ‘나’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지 ‘나’의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 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가 ‘(노새를) 안 치워도 나 아부제 집에 가 살아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아부제’가 채차 ‘치우지 뭐. 치울 거야.’라고 말하는 모습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당숙은 ‘나’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아부제’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당혹감에 섰듯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나’의 변화된 태도에 기분이 좋아진 당숙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 주고 싶어서 대화에 갈 것을 권하고 있다. ③ 당숙은 자신에게 아들이 생김으로써 ‘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만아들이 생겼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다. ④ 당숙은 ‘나’가 집안 어른들의 강요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살려고 하

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는 ‘노새(말)’의 희생으로 인해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상처 받은 당숙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죄책감에 당숙을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① ‘나’가 당숙의 집으로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다는 것은 양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양자가 되는 일로 인해 갈등 관계에 있었던 당숙과 화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당숙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노새를 끌었으며, 그 때문에 ‘나’는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나’가 양자가 된 이후에도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③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인 후에도 그 ‘아부제’의 노새를 멀리했다는 것은 ‘나’가 노새를 끄는 당숙의 삶을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⑤ ‘나’는 과거에 노새를 끝까지 외면하고 싫어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노새와 관련된 일을 원고에 쓰지 못한다.

** 기술 **

□ 출전: 정용택, <사물인터넷, 스마트센서로 정복하다>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적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가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내부의 음전하와 양전하 간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분극)가 변하여 전기적인 평형이 무너짐에 따라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① 2문단에서 광전자 증배관의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집속전극에 의해 가속된 후 제1 다이노드에 충돌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다이노드는 집속전극에 의해 가속된 광전자를 증배하는 역할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제1 다이노드에서 발생한 2차 전자는 다시 가속되어 제2 다이노드에 충돌하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배된다고 하였으므로, 제2 다이노드에서 증배된 전자 수는 제1 다이노드에서 증배된 전자 수보다 많다고 보아야 한다. ④ 1문단에서 ‘불꽃 감지기는 불꽃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검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2문단과 3문단에서는 불꽃 감지기가 빛의 파장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0m 거리에 있는 0.1㎡ 크기의 화염을 감지할 수 있는 불꽃 감지기가 15m 거리에 있는 화염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화염의 크기가 0.025㎡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0.03㎡ 크기의 화염 또한 감지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UV 트론’이 자외선을 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차 전자는 음극에서 방출된 것이 아니라 유리관 속을 채운 가스 분자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UV 트론’뿐만 아니라 광전자 증배관도 증배된 2차 전자를 활용한다.

① 광전자 증배관은 다이노드에 의해, ‘UV 트론’은 유리관 속을 채운 가스 분자에 의해 전자 수가 증배된다. ③ 광전자 증배관은 음극에서 방출된 광전자가 다이노드와 충돌함에 따라, ‘UV 트론’은 가스 분자와 충돌함에 따라 전자 수가 증배되어 전류를 발생시킨다. ④ 광전 효과란 ‘빛이 입사하여 광전면인 음극에 도달하면 음극 표면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말한다.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 모두 빛이 입사되면 광전면에서 광전자를 방출하므로 광전 효과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공통적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를 증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이유는 전자 수가 증가하면 전류의 크기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에 입사한 빛이 미약하여 소량의 광전자만 음극에서 방출되더라도 전자 증배 과정을 통해 큰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 결과 화재 감지기의 센서는 보다 민감하게 화재원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적외선이 초전형 센서에 입사되면 초전체의 온도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부유 전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부유 전하는 초전체 내부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외선이 초전형 센서에 입사되지 않으면 부유 전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낼 수 없다.

② 초전체로 주로 사용되는 강유전체의 자발 분극 특성이 사라지면 부유 전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전력이 발생한다. ③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흑화막이 아닌 광학 필터이다. ④ 자발 분극 특성을 가지는 물질인 강유전체는 외부의 압력이나 전기장의 영향 없이도 분극이 유지된다. ⑤ 초전형 센서는 입사된 적외선 파장이 불꽃 감지기 내부의 온도를 변화시켜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27. [출제의도] 자료 해석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 그래프의 태양광은 불꽃과 마찬가지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에서 복사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기 때문에 불꽃 감지기의 오보 확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0에 가까운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의 경우, 태양광에 의해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킬 확률이 극히 낮다. 따라서 불꽃의 파장과 간섭을 일으키는 요인인 태양광의 영향이 거의 없는 특정 파장대를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불꽃 감지기의 오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① 불꽃 감지기는 불꽃의 최대 방사 구간에 해당하는 파장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4.0~4.5 μm 의 파장대는 자외선이 아닌 적외선에 해당하므로 자외선 불꽃 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이다. ②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한다면 불꽃이 아닌 태양광에 의해서도 불꽃 감지기가 화재 경보를 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0.4 μm 부근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적외선 불꽃 감지기에서 불꽃과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동일한 지점들의 파장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하면, 감지기가 불꽃만큼이나 태양광을 감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불꽃 감지기의 오보 확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⑤ 적외선 불꽃 감지기에 약 3.4~4.0 μm 에 해당하는 파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센서를 적용한다면 해당 구간에서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오히려 높기 때문에 불꽃 감지기가 불꽃의 적외선보다는 태양광의 적외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28.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은 ‘자기 것으로 하다.’의 문맥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의 ‘가지다’는 ‘관계를 맺다’의 문맥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 ㉠은 ‘일정한 횟수나 시간, 공간을 거쳐 이어지다.’라는 문맥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문맥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현대시 **

□ 출전: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29.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는 화자의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더 심화시키게 되는 시간적 배경인 ‘대보름 명절’, 결핍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마른 물고기 한토막’ 등의 시구가 반복되고 있으며, 화자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느끼게 되는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이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로 변주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나)에는 춥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고욤나무’나 화자의 바람이 담긴 장소인 ‘그녀의 방’ 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녀를 위한 화자의 상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는 시구가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로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가)와 (나)에 나타나는 시구의 반복과 변주는 모두 시에 나타난 특정 상황과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만 ‘눈보라’로 인해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탈속의 세계에 대한 지향은 (가)와 (나)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만 ‘탕탕’, ‘뽕뽕’ 등의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고 있다. ⑤ (나)에만 ‘오후’, ‘젓’의 명사형 시행 중결이 나타난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은 과거 언젠가 두보나 이백이 찾아갔을 것이라고 화자가 상상해 본 장소일 뿐, 화자가 이곳에서 두보나 이백이 과거에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① ㉠은 화자에게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기듯 웃음으로’ 명절을 보내던 기억이 있는 곳이므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에는 대보름 명절의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타관에서 소외감을 겪고 있는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그녀’가 더 이상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실감하게 함으로써 화자에게 상실감을 유발하는 장소이다. ⑤ ㉠은 실제로는 공간이 아니라 추위로 고통 받았던 그녀의 삶에 대해 화자가 느낀 연민의 정서, 그 내면 의식이 만들어 낸 상상의 장소이다.

31.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한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은 낯선 타관에 있는 화자가 일시적으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이 장소가 현재 화자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느끼는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고 있지도 못하다.

② 화자는 과거 고향에서 ‘일가친척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실컷 먹으며 명절을 즐겁게 보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마른 물고기 한토막’을 먹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더욱 심한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 ④ ‘떡국’은 타관에 있는 화자에게 ‘마음을 누꾸어 위안’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득하니 슬프게 만드는 소재’이기도 하다. ⑤ 화자는 ‘떡국’과 유사한 음식인 ‘원소’를 떠올리게 되면서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 즉 타관에서 외로움을 느꼈을 중국의 옛 시인들과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화자는 ‘그녀’가 ‘저 먼 나라’에서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방에 머물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그녀’가 이승에서의 추위를 따뜻했다고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화자는 ‘그녀’가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을 다 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고 있다.

③ 화자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 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이다. 불의 감각은 그녀가 이승에서 느꼈던 감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자는 그녀가 이승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를 바라고 있다. ⑤ 화자는 그녀를 위해 재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끌어낸다. 화자의 이 같은 행위는 그녀의

이승에서의 아픈 기억을 모두 없애 줌으로써 그녀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녀와 관련한 자신의 슬픔, 즉 그녀의 과거 고통스러운 삶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과 그녀의 부재로 인한 슬픔까지를 모두 비워냄으로써 화자 자신도 마음의 평온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 사회 **

□ 출전: 배무기, <노동 경제학>

33.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인원 감축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하였다.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① 3문단에서 마찰적 실업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 수준만큼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계절적 실업은 ‘계절의 변화로 인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마찰적 실업과 계절적 실업은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능력이 있으나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구직 단념자라고 했으며, 구직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4문단에서 ‘배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실업률만으로는 정확한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 고용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3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취업 준비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이며, 이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되면 노동 가능 인구는 그대로이지만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게 되고, 실업자 수는 그대로이지만 취업자 수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감소하고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률(㉡)은 증가하게 된다.

① 육아로 인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이므로 ㉠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②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8시간만 일을 한 사람은 취업자이므로 ㉡에 반영된다. ③ 이직을 위한 퇴직자는 실업자에 해당하므로 실업자가 증가하면 ㉠은 증가하고, ㉡은 감소하게 된다. ⑤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구직 활동을 포기하게 되면 구직단념자가 된다. 구직단념자가 되면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가 동시에 감소하므로 ㉠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는 그대로이고, 취업자 수도 그대로이므로 ㉡은 변함이 없다.

35.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의 사례는 □□제화의 생산 설비 자동화, 즉 기술 혁신에 따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노동자가 갖추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에게 유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

① <보기>에서 발생한 실업은 과도한 설비 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보기>의 실업 해결 방안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② 인원 감축의 결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으로, <보기>의 실업 원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대책은 그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3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현

노동 시장 상황에서의 실업자 수에서 완전 고용 상태에 해당하는 실업자 수를 뺀 인원수라고 하였다. 따라서 ‘A’의 실업자 수 ‘20만 명’에서 완전 고용 상태에 해당하는 실업자 수인 ‘10만 명’을 뺀 ‘10만 명’이 수요 부족 실업자 수이다.

① 4문단에서 수요 부족 실업자는 경기를 부양시켜 결원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완전 고용 수준에 대응하는 실업자 수까지만 줄어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기를 부양시켜 일자리의 수를 증가시킬 경우 완전 고용 수준에 해당하는 실업자 수인 1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③ 4문단을 통해 수요 부족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를 부양하면 완전 고용 수준에 해당하는 실업자 수까지 줄어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키면 완전 고용 수준에 해당하는 10만 명까지 실업자를 줄일 수 있으므로 현재 5만 개의 일자리보다 5만 개를 더 늘릴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자와 비수요 부족 실업자를 구분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보기>에서 완전 고용 수준에 해당하는 실업자 수인 10만 명이 비수요 부족 실업자이므로 <보기>의 베버리지 곡선은 ○○ 지역의 10만 명에 해당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했다. 따라서 노동 시장 상황이 A에서 A’로 이동한다면 노동 시장의 비수요 부족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㉔의 ‘파악’은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의 의미이다.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봄.’은 ‘관망’이다.

**** 갈래복합 ****

□ 출전: 장복점, <고산별곡(孤山別曲)>
윤오영, <까치>

38. [출제의도] 화자와 글쓴이의 태도 이해하기

(나)의 글쓴이는 관조적인 태도로 ‘까치’에 대해 관찰하고 있으며, ‘까치’와 마주친 경험을 계기로 담백하고 기교 없는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①, ② (가)는 자연에 은거하며 사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과 함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그러나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에서 글쓴이는 자연이나 사물을 관찰하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 방법 파악하기

[A]에서 화자는 얼마 전 빛은 술을 물과 산과 달과 함께 마시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B]에서 글쓴이는 낮잠 자는 노인의 배 위에서 놀고 있는 까치 한 마리가 그려진 ‘민화’ 한 폭을 떠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A]에서는 ‘술’이라는 사물을, [B]에서는 ‘민화’라는 사물을 매개로 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B]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둘 다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은 나타나지만, [B]에 대상을 의인화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에 구체적 대상은 드러나지만 [B]에 추상적 소재가 열거된 것은 아니다. 또 둘 다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④ [A]와 [B] 모두에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자연의 역동적 생명력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제7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생애가 고통스럽고, 세상을 사는 맛도 무미건조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를 <보기>와 연결하면 출사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특별히 이루어 놓은 일 없이 말년에 접어든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청산’, ‘녹수’, ‘석양’, ‘신월’ 등을 통해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존주’를 통해 이룬 것 없이 만년에 이른 자신의 ‘시름’을 풀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② <제3수>에서 ‘강산’은 자연을, ‘세로’는 속세를 의미한다. 화자는 출세를 위해 누군가에게 허리를 굽실거려야 하는 ‘세로’의 삶 대신에 ‘강산’에서 ‘백년소일’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호리라’를 통해 이러한 삶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제4수>에서 화자는 자신이 ‘고산 불교정’에 기거하는 이유를 그곳이 좋아서라고 말하며 ‘늬’, ‘손’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9수>에서 화자는 ‘종기’를 언급하며 ‘이 곡조 게 뉘 알이’ 등의 표현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고, 하늘의 ‘일륜명월’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달래고 있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글쓴이는 ‘민화’의 내용이 기발한 상상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새롭게 깨닫으면서, 정호음의 시에 대한 이지봉과 김백곡의 시화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정호음의 시에 대해 이지봉이 ‘실경에 맞지 않는다’고 폄하한 것과 달리 김백곡은 이를 ‘실경을 그린 명구인 것을 알았다’고 했다는 것이 ‘시화’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글쓴이는 자신도 김백곡과 같이 ‘민화’의 까치가 상상이 아닌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시화’의 두 상반된 해석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기존의 상반된 해석들, 즉 이지봉과 김백곡의 해석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① ‘정릉 안’의 그윽한 ‘숲 속’에서 까치와 함께 고요한 시간을 보낸 인상적인 경험이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사람들로 붐비던 과거의 경험과 대비되어 이 글의 창작 동기가 되고 있다. ② ‘까치 소리는 반갑다.’라는 표현으로 서두를 열면서 까치 소리의 속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까치집’의 특성을 ‘영성하게 엮어 놓은 것’, ‘나무 삭정이가 그대로 떨어져서 쌓인 것’ 등으로 서술하면서 ‘소쇄한 맛’이 좋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④ ‘까치집’과 유사한 ‘제비집’, 이와 대비되는 ‘비둘기장’으로 소재가 이어지면서 ‘집’과 ‘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장백전(張伯傳)>

4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장백과 명 황제의 군대가 서로 전투하는 상황 속에서 이덕과 운단이 죽음을 맞이하고, 유기가 격문(檄文)을 보내 장백을 불러 양진이 살기충천하게 대립하는 등 인물 간 대결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한자 성어가 등장하고는 있지만,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신이한 존재인 ‘철관도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립하고 있는 인물은 등장하고 있지 않다.

43.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하기

유기가 장백에게 보낸 글을 살펴보면, 명 황제가 먼저 장안을 차지한 것과 장백이 옥새를 취한 것을 들어 두 장수의 공로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장백을 잔치에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명 황제보다 장백의 공로가 우세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장백은 주성이 살기를 띠어 방위를 떠난 천문을 보고, 복병이 올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② 명 황제의 명을 받은 유기는 구체적인 전술을 세워 문정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정은 장백과 이정에게 사로잡히고 만다. ④ 황후는 어린 시절 도적에게 잡히고 장백과 헤어지게 되자, 소상강 원혼이 되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구하는 사람’을 만나 목숨을 건지게 된다. ⑤ 장백이 주 씨에게 옥새를 올리자, 주 씨는 기뻐하며 장백의 공로에 크게 감사해 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에서 문정은 신과 같이 성스러운 존재로서 문무에 통달한 주 씨가 민심을 조금도 어지럽히지 않고 황제의 자리에 굳건하게 오른 반면, 장백이 군사를 일으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점을 꾸짖으며 장백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서는 장백이 어린 시절 누이와 헤어지게 된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① ㉠에서 장백의 부족함을 꾸짖고 있는 것과 ㉡에서 장백은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보기>는 천명의 의미를 밝히고, 작품 속에서 갈등 해결의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천명과 남매의 상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B]에서 장백은 어린 시절 누이와 이별하게 된 사연을 떠올리고 있을 뿐 천명을 거역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① [A]에서 철관도사는 장백의 천명에 대해 환기시키며, 천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장백을 꾸짖고 있다. ③ [C]에서 장백은 원 황제로부터 받은 옥새를 언급하며 자신이 명 황제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으므로, 장백이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을 부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D]는 장백이 어린 시절 헤어진 누이와 상봉한 후에 명 황제에게 옥새를 올리며 한 말로, 누이를 황후로 맞이한 명 황제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왕위에 오를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장백이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E]는 장백이 명 황제에게 옥새를 올리고 이에 명 황제가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장백이 개인의 욕심에 따라 명 황제와 대립하지 않고, 하늘이 정한 운명의 길을 따라 명 황제와 화합하는 길을 선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